

‘난징대학살’ 문제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국제정치학적 딜레마

이화준* · 고희탁**

jsps1017@gmail.com, glocal@yonsei.ac.kr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난징대학살’ 문제와 중국에서의 기억의 정치
- III. ‘난징대학살’ 문제와 일본에서의 기억의 정치
- IV. 기억의 정치의 국제화
- V. 기억의 정치와 국제정치학적 딜레마
- VI. 맺으며

Abstract

The Politics of Memory has been primarily used in critical analysis of Imagined Community within a nation or ethnicity. However, it is imperative to examine how it affects other nations while concurrently examining how it is remembered or forgotten within, as in case of Nanjing Massacre, which is still a controversial issue between China and Japan.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s being highlighted recently, and a people, united under Common memory, not only act as consumers with a certain national identity, but also play a pivotal role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s the aggressive actor from bottom. This is the reason why one can never overlook dynamic mutual relations, the Politics of Memory and the accompanying international dilemma.

This paper first observes how Politics of Memory of Nanjing Massacre unfolded in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and how it affected their mutual relations. Then it further analyzes its unfolding process in the light of national planning and reproduction, as well as the dual structure of projection intoand a feedback by the private sector, which is inherently and ironically part of The Politics of Memory and poses challenges as international dilemma.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BK 연구교수.

Key Words : 記憶の政治、南京虐件、中日關係、東アジアの歴史問題

(Politics of Memory, Nanjing Massacre, Japan-China Relationship,
Historical issue in East Asia)

I. 들어가며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근대적 민족 혹은 국민에 대해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상상된 공동체’로서 재정의하였다¹⁾. 그에 따르면, 민족 혹은 국민적 정체성은 오래된 국민적 삶의 연속적 실체로서 당연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런 만큼 르낭(Ernest Renan)이 민족 창출의 근본적 요인으로서 역사인식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처럼²⁾, 정체성을 부여하는 속성으로서의 ‘역사’에 민족 혹은 국민 형성의 중요한 역할이 맡겨지게 된다. 거기서 ‘역사’의 재구성을 둘러싼 기억의 선택 및 배제의 정치적 과정과 그 의미가 부각되지 않을 수 없는데, 바로 기억의 정치학은 이러한 ‘상상된 공동체’를 지탱하는 역사의 저변으로서의 이른바 자타를 둘러싼 ‘공동의 기억(혹은 망각)’이 어떻게 기획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형성된 공동의 기억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그 정치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적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고찰의 유력한 방법론의 하나로서 기억의 정치학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로즈맨(Rozman)이 동아시아의 기억의 문제는 분명 동아시아 지역주의에서 심각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결국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유럽과 달리 전쟁기억에 대한 중첩 및 해석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일이었다

1)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2002)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관한 성찰』 나남, p.25.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심사과정에서 친절하고 꼼꼼하게 지적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 에르네스트 르낭, 신행선 역(2002)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p.61.

고 간주하면서, 이를 해결하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심대한 공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바는 시사적이다.³⁾

첫째, 각국에서의 기억(혹은 망각)의 문제는 그 본질적 성격상 '우리' 내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의 '타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환기라는 점이다. 주 지엔롱(Zhu Jianlong)의 연구는 중국 내셔널리즘의 성장과 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한 태도를 연관시켜 분석하고 있는데⁴⁾, 거기서는 기억의 정치가 단순히 국가 내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타자'의 기억 형성에도 깊이 관계하고 있다는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지역적 협력의 장애요인 중에서 전쟁을 둘러싼 기억이 가장 침예한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그 기억은 폭력과 희생이 동반되는 만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도식화를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에 대한 환기라는 점이다. 특히, 전쟁을 치른 국가의 국민들의 전쟁과 역사에 대한 가치판단에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집단적 기억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기억은 전쟁 종식 후의 국민적 아이덴티티의 구성에 핵심적 요소인 것이다⁵⁾.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난징대학살'⁶⁾ 문제는 각각의 국가 내부에서 전쟁의 폭력성을 둘러싸고 어떻게 기억 혹은 망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기억의 정치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억의

3) Gibert Rozman(2008) 『East Asian Historical Issues in a Contemporary Light』 *East Asia's Haunted Present*, Connecticut :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p.43.

4) Zhu Jianlong(2008) 『Japan's Role in the Rise of Chinese Nationalism : History and Prosepcts』 *East Asia's Haunted Present*, Connecticut :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p.185.

5) 김상준(2005) 「논문 : 기억의 정치학: 야스쿠니 vs. 히로시마」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5호, 한국정치학회, p.226.

6) 중일전쟁기에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난징에서의 일련의 대량학살을 둘러싼 용어의 사용에는 논란이 없지 않으나, 본고에서는 'Nanjing Massacre'의 번역어로서 '난징대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량학살'이라는 용어는 'Massacre'의 번역어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예를 들어, 박명림(2002)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거창사건'의 사례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p.69, p.463), 동아시아사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역사교과서의 서술에서도 '난징대학살'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다(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2005) 『미래를 여는』역사』 한겨레신문사 참조). 이러한 시각에서 이하에서는 '난징대학살' 문제를 편의상 난징대학살로 서술하였다.

정치에 동반하는 국내적 과정과 더불어 국제적 영향 등의 다이내미즘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유력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의 2007년 ‘난징대학살 70주년 기념행사’가 자국 정부에 의해 취소 혹은 축소되거나 다큐멘터리 ‘난징의 악몽’이 중국 내 상영이 금지되는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에 대한 기억으로 국민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해온 국민에 의한 내셔널리즘적 분출을 오히려 자국 정부가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관리 혹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도 직면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의 정치와 국제적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난징대학살’ 문제는 흥미로운 소재임에 틀림없다.

기억의 정치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과거의 역사 및 내러티브가 어떻게 집단 기억으로 발전하는가, 혹은 기억이 정치로 발현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별로 어떠한 양태에서의 차이를 가지는가를 다루는 비교연구 등의 국내적 연구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그 국제적 영향 및 상호과정 등의 다이내미즘에 대해서는 첫발을 뗀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⁷⁾ 그러나 기억의 정치가 단순히 국가에 의한 동원과 재생산이라는 일방적 방향에서만 조명되어서는 기억의 정치에 내포된 다양한 기억 간의 경합의 문제가 경시되기 쉽다⁸⁾. 뿐만 아니라, 공동의 기억으로 형성된 국민이 단순히 국민적 아이덴티티의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국제적 경쟁 및 협력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7) 그 전형으로서 Jeffrey Olick, 최호근·민유기·윤영휘 역(2006) 『국가와 기억 :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본 집단기억의 연속·갈등·변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446, 참조.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서 조슈아 포겔(Joshua Fogel)은 ‘난징대학살’ 문제에 대한 기존의 시각들을 비판하면서, ‘난징대학살’이 70년이 지난 현재는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의식을 정체성의 중요한 기둥의 하나로 삼는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과 일본의 국제적 문제로 확대되었다고 한다(Joshua Fogel(2007), *The Nanking Atrocity and Chinese Historical Memory*, Bob Tadashi Wakabayashi edit, *The Nanking Atrocity 1937-38*, New York: Berghahn Books, p.283). 한편, 요시다 다카시는 ‘난징대학살’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미국과 일본, 중국을 서로 자극하고 있으며, 그만큼 ‘난징대학살’ 문제는 사실 그 자체로서의 문제를 넘어 점차 상징적 의미를 띤 국제적 중요문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Yoshida Takashi(2007), *Wartime Accounts of the Nanking Atrocity*, Bob Tadashi Wakabayashi edit, *The Nanking Atrocity 1937-38*, New York : Berghahn Books, pp.261-262). 위의 두 연구는 ‘난징대학살’ 문제에 내포된 국제정치학적 다이내미즘을 드러내려고 한 선구적 시도라 할 수 있다.

8) 김상준(2005) 「논문 : 기억의 정치학: 야스쿠니 vs. 히로시마」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5호, 한국정치학회, p.216.

로부터'의 적극적 행위자(actor)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는다는 다이내믹한 상호관계나 기억의 정치와 국제정치학적 딜레마의 문제가 간과되지는 않을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난징대학살을 소재로 한 중국과 일본의 기억의 정치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그 양상이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나서, 그 과정을 국가 내 기획과 재생산, 그리고 민간영역의 투영과 피드백이라는 이중적 구조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그것을 기억의 정치에 본질적으로 내포되지 않을 수 없는 국제정치학적 딜레마의 문제로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II. 난징대학살 문제와 중국에서의 기억의 정치

난징대학살은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난징 함락을 전후로 하여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 및 강간 등의 폭력과 파괴 등의 총체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그 규모를 둘러싸고 데이비드 애스큐(David Askew)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환상론자(Ilusion School)들은 0-10,000명, 절충론자(Middle of Load School)들은 10,000명에서 42,000명, 그리고 인정론자(Great Massacre School)은 최소 10만에서 20만 이상으로 사상자를 추산하고 있다.⁹⁾ 그 이전에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난징에서 3만에서 4.2만이 일본군의 불법행위로 살해되었다고 보는 절충설¹⁰⁾을 2007년까지 주장하였다.¹¹⁾ 이러한 하타의 주장에 대해, 밥 타다시 와카바야시(Bob Tadashi Wakabayashi)와 애스큐는 한편으로는 난징 시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한정하는 한 적절한 연구였음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와카바야시는 난징 시외에서 발생한 학살자나 전쟁 포로 살해자를 포함하는 유골발굴지와 양쯔강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 그리고 일본 측 군

9) David Askew, New Research on the Nanjing Incident <http://www.japanfocus.org/-David-Askew/1729> (검색일 : 2011.2.9)

10) Bob Tadashi Wakabayashi(2007) Leftover Problem, The Nanking Atrocity 1937-38, New York: Berghahn Books, p.378.

11) 2007년에 들어서 하타 이쿠히코는 자신의 주장을 최대 42,000명에서 최대 40,000명으로 수정하였다.(週刊新潮 2007年 12月 27日号).

사서류의 기록을 참조하여 10만에서 20만이라는 수치를 도출하고 있다.¹²⁾ 이처럼 규모에 있어서도 난징대학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그 발생이 우발적이었다기보다는 난징에 주둔한 일본군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행위였다는 점이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명기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작지 않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기념’이라는 형태로 주기적으로 되살아나면서 ‘집단적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¹³⁾

전쟁에 대한 기억은 기억이 축적되는 장소에 따라 개인, 단체, 그리고 공적 영역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개인의 기억’이 주로 전쟁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으로 형성된다면, ‘단체적 기억(group memory)’은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억이다.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y)’은 개인이나 단체의 구분을 넘어서 사회에 널리 유포된 것으로 집단적 기억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공적 영역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¹⁴⁾ 그렇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단일한 국가적 기억이나 하나의 민족 기억이 사실상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집단 기억이란 시각이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수많은 하위집단들의 기억들을 지칭하는 집합기억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많은 집합기억들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몇 개의 조합이 하나의 지배적 기억을 형성하여 일종의 집단 기억으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기억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현실관계와 담론 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기 때문에 기억 자체의 단일 지속성은 한계가 존재한다.¹⁵⁾ 본래 집단 기억은 복합적인 층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복합적 층위는 기억을 형성하고 재생산하며 그것이 상층 기억이 재가한 형식으로 포함과 배제의 작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¹⁶⁾ 이러한 측면은 난징대학살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난징대

12) Bob Tadashi Wakabayashi(2007) *Leftover Problem, The Nanking Atrocity 1937-38*, New York: Berghahn Books, pp.357-384.

13) David I. Kertzer(1988) *Ritual, politics, and power*,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p.62.

14) 김상준(2005) 「논문 : 기억의 정치학: 야스쿠니 vs. 히로시마」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5호, 한국정치학회, p.218.

15) Jeffrey Olick, 최호근·민유기·윤영휘 역(2006) 『국가와 기억 :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본 집단기억의 연속·갈등·변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446.

16) 장세룡(2010) 「로컬 기억과 기억의 정치 : 폴란드 에드바르네 유대인 학살 기억의 사례」 『대구사학』 제98권, 대구사학회, p.29.

학살 문제가 사건 그 자체와 전쟁범죄로서 재판이 진행된 과정,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기억의 동원과 재생산에서 단일하게 지속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난징대학살의 문제와 기억의 정치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난징대학살은 전쟁 중 잔혹행위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으며, 그 세부사항에 관한 재판 역시 난징에서 진행되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재판에서 난징대학살 문제는 명백히 전쟁범죄로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에 대한 처벌 또한 동반되었다. 법정에서는 난징대학살이 “이를 수행하라는 명령이 비밀스럽게 내려졌고, 이는 명령에 입각하여 계획적으로 수행되었다”고 결론지어졌지만, 난징대학살 사건 당시 상하이 방면군 사령관이었던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가 사령관으로서의 감독 소홀의 책임을 이유로 한 ‘부작위의 죄’에 의해 사형이 언도되었다.¹⁷⁾ 결국 그에게는 또한 난징군사재판에서 다니 히사오(谷寿夫)에 대한 심판 역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는 1937년 난징에 주둔한 일본군 6사단 육군 중장이었는데, 일본군 6사단은 난징 시내에서 온갖 많은 만행을 저질러왔던 부대였다. 결국 1946년 8월 재판에 회부된 다니 중장은 난징으로 소환되었다. 그를 기소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가들이 난징 시내 근처에 있는 매장지를 파헤쳐 수천 구의 유골을 발굴했다. 1947년 2월 6일 다니 중장에게 유죄판결 내려졌고, 동년 3월 10일 다니는 전쟁법과 전쟁포로에 대한 대우에 관한 헤이그협정 위반 혐의와 자신의 부대가 난징에서 30만 명을 학살한 것에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사형을 언도 받은 후 공개총살이 집행되었다. 이어서 1946년 8월부터 1947년 2월까지 난징에서 B급, C급 전범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한편, 이 재판에서 1천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460여건의 살인, 강간, 방화, 약탈 등에 관해 증언하였다. 또한 재판부가, 난징에서의 모든 범죄행위는 난징의 일본 대사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난징의 잔학 행위

17) 마쓰이 이와네는 난징대학살 당시 병으로 인해 진영을 이탈해 있었다. 그와는 별도로 사령부 휘하의 장성들은 다니 히사오 외에는 처벌받지 않았다. 실질적인 난징 진격의 총책임자이자 중지나파견군 휘하 제16사단장이었던 나카지마 게사고(中島今朝吾)는 1945년에 요독증과 간경화증으로 사망하였고, 중국 주둔의 제10군의 사령관이었던 야나가와 헤이스케(柳川平助) 역시 1945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또한 병중에 있던 마쓰이를 대신하여 지휘를 대신한 황족 출신의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朝香宮鳩彦王)는 일본 황실이 법정 수사에서 제외되면서 처벌받지 않았다.

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난징대학살에 대한 재판이 그 문제를 종결시킬 수는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피해자의 입장이 배제되어 있었으며, 둘째는 이러한 재판의 결과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남겨두게 되었던 것이다.¹⁸⁾

난징대학살 문제는 처음부터 일본의 중국침략에 있어서의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아니었다. 지극히 지역적인 이미지가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개인적 기억의 차원에서만 취급되어왔다. 국가는 그 문제에 개입할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였다. 특히 당시의 국민당 정부는 독가스와 세균전, 그리고 공습으로 인한 피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중국공산당 또한 내전에서의 승리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내전에서 승리한 후에도 중국공산당 내에서 난징대학살은 공식적인 기억으로 자리잡을 수 없었다. 중앙정부가 허락하는 제한된 상황에서 난징에 있는 주민들과 피해자와 가족들만이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양상은 이른바 냉전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난징대학살 문제가 민족적 기억으로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일본에서 과거사 문제가 공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때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은 본 논문의 문제의식에서 볼 때 중요하다. 이때부터 중국정부는 난징대학살의 사망자 수를 30만 명으로 공식화하고 일본의 잔학성을 부각시키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막대한 양의 돈을 들여서 난징대학살의 기억을 재생하고 공식화하는 데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갔다. 중국정부는 난징대학살 현장에 1985년에 난징대학살기념관을 완성하고 중국인들에게 난징대학살의 잔혹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 기념관 설립은 난징대학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점이 분분한 난징대학살에 대해서 정부가 역사와 기억을 공인하고 그렇게 공인된 역사를 증폭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기념관에서는 난징대학살의 유물과 동시에 유해가 발굴되는 현장을 전시하고 있으며, 전쟁 중 사건이 전개된 시간과 공간을 축으로 당시의 신문기사들을 발췌해 당시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레이션의 요소를 담고 있다. 동시에 박물관의 조각과 전반적인 모습이 추모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현의 기능도 분

18) Iris Chang, 김은령 역(1999) 『난징 대학살』 플리오, p.216.

명히 작동하고 있다. 이는 전쟁기억의 사회화에서 추모, 내레이션, 재현을 모두 동시에 진행하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에 해당한다. 추모와 내레이션, 재현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전쟁박물관으로서의 행태는 난징대학살기념관이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중국에서 난징대학살 문제가 중일전쟁 전체의 상징이 되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⁹⁾

물론, 중국정부가 난징대학살 문제를 기억의 주요한 소재로 삼고자 한 데에는 중국이라는 다민족국가를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상상'하게 하려는 목적에 활용되었다는 측면은 부정하기 어렵다. 난징대학살의 기억을 사회화함으로써 난징대학살의 기억을 집단의식화하여 중국이라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가정체성의 하나의 요소로 투사시켜간 것이다. 그러한 측면도 작용하여 난징대학살 기념관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둘러싼 움직임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한 3대 피해의 상징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²⁰⁾

그렇기는 하지만, 난징대학살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중국에서의 기억의 정치의 특징 중 하나는 일본의 난징대학살 문제에 대한 은폐 및 왜곡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적인 성격이 크다는 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난징대학살 및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내러티브가 커지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에서 난징대학살과 관련된 기억이 증폭되어갔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 일본에서 과거사 문제가 공격적으로 제기된 것이 그때까지 과거사문제에 대해 그다지 큰 반발을 보이지 않던 중국정부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난징대학살과 관련된 논란 또한 중국 내부에서도 확장되었다. 난징대학살 기념관 건축과 증축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적인 면이 분명히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기억(혹은 망각)의 정치가 중국의 기억의 정치의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서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 동북아역사재단 엮음(2009)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 1, 關東·東北지역 편』 동북아역사재단, p.108.

20) 여문환(2009)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국제정치 : 한·중·일 전쟁기념관을 가다!』 한국학술정보, p.120.

Ⅲ. 난징대학살 문제와 일본에서의 기억의 정치

앤더슨(Benedict Anderson)과 르낭(Ernest Renan)은 모두 국가와 민족 형성에 있어서 망각이라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르낭은 망각(심지어 역사적 오류)조차 민족 창출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그 속의 모든 개인들은 많은 것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한다.²¹⁾ 앤더슨 또한 기억과 망각은 동시에 이뤄진다고 강조한다. 특히 앤더슨은 민족의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높아져 가는 사망률, 본보기가 되는 자살, 매서운 순교, 암살, 처형, 전쟁 그리고 대학살과 같은 폭력적인 죽음은 서술의 목적을 위해 ‘우리들의 것’으로 기억 혹은 망각되어왔다고 환기시킨다.²²⁾ 난징대학살 문제가 국가적 기억 및 망각의 중요문제라는 의미에서 그에 대한 기억과 망각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지 않을 수 없다.

난징대학살 문제를 둘러싼 일본에서의 기억의 정치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태평양전쟁 그 자체에 대한 일본에서의 기억양상에 대해 먼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전형적 방식은 기존의 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동일선상에 놓고 후자를 ‘상대화(relativization)’하는 전쟁관의 유포에 있었다. 태평양전쟁은 이전의 전쟁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전쟁 일반에 속하는 것이고, 제2차 세계대전도 특수한 전쟁이 아니라 국가들의 생존을 위한 행위와 같은 이전의 전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관에 의거한 기억은 결국 전쟁의 ‘정당화 아이덴티티²³⁾’의 형성에 기여하였고, 그러한 사고는 정치가와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유포되었음을 1994년 호소카와(細川) 수상의 발언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른바 55년 체제가 파탄난 후에 비자민당 계열로 수상의 지위에 선 바 있는 그는 침략전쟁이라는 국

21) Ernest Renan, 신형선 역(2002)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 세상, pp.61-62.

22) Benedict Anderson, 윤형숙 역(2002)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pp.253-261.

23) 사회행위자와 비교하여 자신의 지배를 확대 또는 합리화하기 위해 사회의 지배적인 제도에 의해 도입된다. 정당화 아이덴티티는 일련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사회적 행위자뿐만 아니라 조직과 제도의 접합, 즉 시민사회를 발생시키는데, 이것들은 종종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구조적 지배의 원천을 합리화시키는 정체성을 재생산한다. Manuel Castells, 정병순 역(2008), 『정체성 권력』 한울아카데미, pp.25-26.

제적 규정을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른바 ‘미국과 영국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미영동죄사관(米英同罪史觀)’에 의거하여 “(전쟁책임에 있어서) 일본만 비난할 것이 못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²⁴⁾. 또한 1994년 NHK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2%가 청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전쟁에 대해 ‘침략 전쟁’이기는 했지만, ‘당시 어쩔 수 없었던 행위’라는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과거 전쟁에 대해서 필요에 의한, 혹은 불가피한 전쟁이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²⁵⁾ 그러나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지적하는 것처럼, 국가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클라우제비츠의 이른바 ‘전쟁도 정치의 연장’이라는 전쟁관은 유럽에서의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거치면서 국제법적으로 불법화되어간 현실을 무시하는 측면이 드러나고 있는 지점이다²⁶⁾.

한편, 일본에서는 난징대학살 문제가 단일한 기억(망각)으로 공식화되어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 그렇기는 하지만, 난징대학살 관련 중국 정부에서 제시하는 희생자 수치가 과장되어 있다는 입장은 일본 내에 있어서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 듯하다. 희생자 수는 30만이 아닌 5만에서 6만 정도의 규모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태도는 난징대학살이 홀로코스트에 비견될 정도로 잔학하지 않았다는 강변으로도 들릴지 모른다. 그 한 예로, 1972년부터 일본에서 잡지와 단행본으로 발간된 스즈키 아키라(鈴木明)의 『난징대학살의 환상』이라는 저서가 있다. 저자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난징대학살은 환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 십 만의 중국인을 살해했다는 것은 과장이라는 주장에 그 요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책 제목이나 논리의 전개 등에서 난징대학살에 대한 ‘환상화 공작’의 의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책이 난징대학살 문제에 대한 이른바 우익적 교과서 기술에서 ‘난징대학살 부정론’의 근거로 항상 인용되고 있다는 점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²⁷⁾

게다가 일본 내부에서는 난징대학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도

24) 江口圭一(1995) 『日本の侵略と日本人の戦争観』岩波ブックレット、p.12.

25) 김상준(2005) 「논문 : 기억의 정치학: 야스쿠니 vs. 히로시마」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5호, 한국정치학회, p.229.

26) 丸山眞男, 김석근 역(2007)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 문학동네, pp.742-743.

27) 家永三郎(2005) 『전쟁책임』 논형. p.92에서 재인용.)

존재한다. 주로 태평양전쟁 유족들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우익세력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난징대학살은 중국이 날조한 사건이며, 이른바 증거로 제시되는 사진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중국군이 포로를 살해하는 모습이며, 일본군은 철저히 군법과 군율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태도는 난징대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된 야나가와 헤이스케(柳川平助) 장군의 회고록에서도 잘 드러난다. 야나가와는 난징대학살에 보여지는 잔학한 폭력행위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하면서, 자신의 부하들은 엄격하게 군율을 따랐다고 자랑스럽게 진술하고 있을 정도이다.²⁸⁾ 이러한 진술에 기반하여 이른바 일본의 극우파는 난징대학살을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²⁹⁾

물론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일본인들이 민주주의와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한 이른바 ‘전후’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수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수정 자체를 ‘전후’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³⁰⁾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있어서도 전쟁기억 자체에는 전후의 내러티브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후의 내러티브를 수정하고 그것을 망각하고자 한다면 이는 전쟁의 부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전쟁범죄의 전면적 부정과 근본적인 전제로서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방식의 차이일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이 난징대학살 문제와 관련하여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입장은 기억의 정치라는 분석틀에서 보면 ‘망각’의 메커니즘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기억의 정치는 기억의 선택을 통해 기억의 증폭이나 기억의 축소 및 망각을 선택한다. 난징대학살에 대해 일본이 선택한 기억의 정치는 바로 ‘망각’이었다. 그 전형이 난징대학살을 전쟁범죄로 단죄하였던 도쿄재판에 대한 망각의 메커니즘이었다. “도쿄재판은 국제법을 무시한 무효재판이다”, “판결은 재판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 “왜 일본에서는 도쿄재판에 대한 위법논의가 일어나지 않는가?”, “미국에 의한 원폭투하도 엄연한 전쟁범죄이다”, “전후 일본 출발의 근본적인 잘못

28) 菅原裕(1971) 『日本心—覆面將軍柳川平助清談』 經濟往来社、p.164.

29) 家永三郎(2005) 『전쟁책임』 논형 p.92.

30) 현대일본학회 엮음(2007) 『21세기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전. 1』 한울, p.180.

을 시정하라!”라는 주장은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³¹⁾ 이러한 측면에는 전쟁과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한 망각이 은폐되고 있으며, 그 기반에는 전쟁기의 일본을 부정한 역사로 간주하던 전후의 역사관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 난징대학살 문제는 각각 기억(망각)의 정치의 중요한 소재였으며, 양국이 본격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이전까지의 시기에는 어디까지나 양국 내부의 문제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가 정상화된 후, 기억의 정치는 단순히 국내적 범위에 국한될 수 없었다. 때때로 중국 정부는 난징대학살의 책임자인 일본측의 망각이 자국 내부의 추모와 모순된다는 것을 분명히 문제시하거나 그것을 일본의 입장에서는 국내정치에 대한 중국의 내정간섭행위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상충된 인식이 부각되게 된다.³²⁾ 게다가 양국에서의 기억의 정치가 본격적 협력관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 단계에 이르면, 기억의 정치와 국제적 딜레마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IV. 기억의 정치의 국제화

중국과 일본은 1972년 국교정상화 이후 약 10여 년의 전략적 우호기를 거쳐 198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역사’의 문제를 놓고 대립하게 된다.³³⁾ 거기에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공약으로 내걸고 등장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의 존재가 중요하다. 그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위해 헌법 개정과 더불어 ‘전후사에 대한 재검토’를 내걸었다. 그 가운데 ‘전후사 재검토’의 주요 내용으로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더불어 역사교과서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교과서란 국민국가의 국민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체로서 그 수록내용 여하에 따라 국민 의식에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31) 최원식·백영서·신윤환·강태웅 엮음(2009)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논형, p.155.

32) 김인(2005) 「초점 : 중국 초점 ; 중국의 반일시위와 중일관계」, 『월간 아태지역동향』 제 160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p.6.

33) 김상준(2007)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서 중국과 일본」,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7권 3호, 21세기정치학회, p.434.

없다.³⁴⁾ 특히, 교과서 내의 난징대학살 문제는 그것에 대한 일본에서의 기억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1982년에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역사교과서 문제가 그 시작이었다. 이 새로운 교과서에서 ‘침략’이라는 표현이 ‘진출’이라는 단어로 바뀌었고 난징대학살에 관한 언급 또한 모두 삭제되었다는 점이 문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신문보도는 결국 오보로 밝혀지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개정이 이미 몇 년 전에 시행되었고 그 당시에도 이미 논란거리였기 때문이다.³⁵⁾ 그러나 이후에도 그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특히 1985년 원고작성이 완료돼 문부성에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는 난징대학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중국에 ‘진출’했다는 표현으로 논란의 쟁점이 되었다. 이때부터 교과서 문제는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일본 문부성이 종전의 ‘침략’을 ‘진출’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기 시작했다.³⁶⁾ 이에 대해 한국 및 중국정부가 항의하였으며, 일본정부는 1986년 6월 17일 동 교과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할 것을 결정한다. 게다가 나카소네 수상의 지시로 문부성에 의한 이례적인 수정이 진행되었고, 그 후 4차까지 수정을 거쳐 7월 7일자로 교과서의 검정합격이 통지되었다.³⁷⁾ 그러나 다른 한편, 나카소네 내각의 후지오(藤尾正行) 문부상은 수상으로부터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개편하라는 지시를 받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불평을 말하고 있는 자들은 세계사의 가운데서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는가!”라고 발언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한편으로는 외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이후의 자민당 내의 “역사검토위원회”와 민간의 “자유주의사관연구회”,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의 발족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를 계기로 국내외의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역사’ 전쟁이 본격화하였던 것이다.³⁸⁾

34) 허동현(2005) 「특집 2 :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후소야 판) 문제의 배경과 특징 역사기억의 왜곡과 성찰」 『한국사연구』 제129권, 한국사연구회, p.149.

35) Ian Buruma, 정용환 역(2002)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한겨레신문사, p.158.

36) 허동현(2001) 「특집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학술대회 ;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한 일관견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경기사학』 제5권, 경기사학회, p.51.

37) 김현우(2004) 『일본 현대 정치사』 아카넷, p.469.

38) 허동현(2005) 「특집 2 :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 일본 중학교 역사 교

이러한 상황은 일본 내의 '기억(망각)'의 문제가 더 이상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의 기억의 문제로 구조가 전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거기에서 중국과 일본정부는 이러한 기억의 정치에서의 명백한 행위자였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파문에 일본정부가 명백히 개입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됨과 동시에 중국정부는 애국주의 교육의 강화의 일환으로 1985년에 베이징에 항일 전쟁기념관 및 박물관들을 건설한다.³⁹⁾ 그와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있던 30만이라는 희생자 수치를 공식화하였다.⁴⁰⁾ 물론 30만이라는 수치는 기본적으로 전 범재판 당시 등장한 수치이긴 하다. 그러나 공인된 것이었다기보다는 30만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정치였다. 이러한 추정치를 공식화함으로써 난징대학살을 기존의 지방적이고 유족 위주의 기억에서 국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억으로 공인하고 확대시킨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난징대학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중일 간의 기억의 정치에서의 대립은 다음과 같은 쟁점에서 정형화하게 되었다. 첫째는 난징대학살 자체의 인정과 희생자 수의 대한 논쟁, 둘째는 난징대학살을 왜곡 서술한 일본 내 교과서 검정을 둘러싼 문제, 셋째는 난징대학살의 책임자까지 합사되어 일본 내에서 태평양전쟁의 추모의 장이 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이다. 이처럼 중일간의 과거사 문제에서 난징대학살의 문제는 과거사 문제의 총체적 집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국정부가 난징대학살 문제를 중국의 '공동의 기억'으로 공식화한 것은 중국의 국가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의할 만한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덩샤오핑 집권기의 중국정부가 민족주의가 공산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일본에 의한 역사적 희생에 강력한 처방을 요구하고 있었던 측면도 부정하기는 어렵다.⁴¹⁾ 하지만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교과서 문제로 표면화한 과거사 문제를 일본 국내의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중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국제적인 문제로 취급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전에 중소 분

과서(후소사 판) 문제의 배경과 특징 역사기억의 왜곡과 성찰』『한국사연구』제 129권, 한국사연구회, p.156.

39) 여문환(2009)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국제정치 : 한·중·일 전쟁기념관을 가다!』 한국학술정보, p.121.

40) 난징대학살기념관 웹사이트, www.nj1937.org(검색일: 2010.12.11)

41) Gilbert Rozman, 이신화·김동중·이성용 역(2007) 『동북아시아 지역주의 : 국가 간 불신, 세계화, 그리고 정제된 협력』博英社, p.112.

쟁이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다나카(田中) 수상과의 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한 사례들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국제정치이론들의 적합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표면화한 중국의 행보는 그때까지의 중국의 외교행태와는 다른 것이었다. 기억의 정치가 국내적 범위를 넘어 국제정치적 범주에서 작동하게 되면서, 일본 국내문제로 한정했던 사항에 대해 국제적 문제로 해석하고 이에 양국 간 차원에서 대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⁴²⁾

1982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일본 문부성의 역사교과서 개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국내적으로도 그 문제에 대한 비판과 반발의 움직임이 동반되었다. 이에 따라 그 진화에 나선 일본정부는 초기에는 이웃국가들의 정서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는 하였으나, 일본 내 보수언론의 반발과 더불어 점차로 역사교과서에서 난징대학살 문제는 부정되거나 혹은 주변적인 것으로 처리되어갔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정부에 ‘가해자로서의 일본에 대한 망각’을 국가적 기억의 문제에 있어서의 중요사항으로 재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 문제 자체를 일본사회의 공론장이나 대중의 의식 속에서 주변적인 사건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도 ‘망각’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화 아이덴티티’를 통해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하여 침략전쟁이라는 측면을 상대화하여 가해자로서의 일본의 이미지를 희석시켜 전쟁을 둘러싼 일본사회의 내부 통합과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교감을 증진시켜온 측면도 없지 않다.⁴³⁾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인된 집단적 기억(혹은 망각)을 형성하는 데에 교과서 같은 매체는 중요한 도구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대규모의 반일시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이 이를 방조한 측면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진 것은 중국 내에서 작동한 기억의 정치가 국가가 행위자인 국제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42) 박경석(2009) 「동아시아의 전쟁기념관과 역사 갈등 (‘中国人民抗日战争纪念馆’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1권,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p.169.

43) 김상준(2009) 「일본 전쟁기억과 공동체의 상상 : 기억의 사회적 재생산을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30호, 현대일본학회, p.37.

민간 영역에서도 이것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는 2005년 3월말 인터넷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시작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 서명운동이 전개되었고, 4월에 들어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를 계기로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며 일본상품 불매를 촉구하는 가두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중국 당국은 시위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⁴⁴⁾ 중국정부는 외교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은 현재 중일관계에 책임이 없으며, 일본측은 중국 침공의 역사처럼 중국인들의 감정에 연관된 중요 문제를 진지하고 적절히 다뤄야 하고, 일본은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 더불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및 리자오싱(李肇星) 외무부장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고이즈미(小泉)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지를 요구하면서 반일시위 격화의 원인이 일본에 있다고 비판하였다.⁴⁵⁾

이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도 중국에서의 반일시위를 즉각적으로 문제 삼았고, 이에 따라 양국 간의 국제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일본정부는 반일시위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2008년도를 시한으로 대중 엔차관 협력의 중단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대응하여 2005년 5월 우이(吳儀) 부총리는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문제 삼아 예정된 회담을 취소하고 바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등의 전개가 펼쳐졌다. 그 이후 양국 간의 갈등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 등을 비롯한 여러 방향으로 심화되어갔다. 이처럼 1980년대 초반에 일어난 역사교과서 기술과 검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기억의 정치는 양국 간에 국제정치적인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확대, 증폭되어간 것이다. 기억의 정치가 국제정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중일 양국 간의 대립은 기존의 양국 협력과 이른바 ‘중일 특수관계론’을 뒤엎을 수도 있는 중요변수로 위상이 뒤바뀐 것이다.

44) 김인(2005) 「초점 : 중국 초점 ; 중국의 반일시위와 중일관계, 『월간 아태지역동향』 제160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p.5.

45) 손기섭(2006) 「고이즈미정권의 동아시아 외교와 중일관계, 『한일군사문화연구』 제4권, 한일군사문화학회, p.128.

V. 기억의 정치와 국제정치학적 딜레마

기억의 정치가 국가 정체성과 연결되면서 국내에서는 기획 및 재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국제정치 영역을 의식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점차 가까워지고 협력의 정도가 증가하면서 기억의 정치는 단순히 국내 정치가 아닌 국제정치 영역에서 그 열광의 장소를 발견해갔다. 게다가 그 열광이 양국 정부의 국제적 협력관계에 커다란 장애로 기능할 수도 있음이 감지될 때에는 결국 국제정치에서 발현되는 기억의 정치를 관리할 필요성에 이끌리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기획하고 방조한 측면이 있는 기억의 정치를 국제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제한하는 국면이 보이는 점은 그 전형적 양상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국제정치 영역에서 난징대학살 문제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의 확산과 증폭에 대해 관리와 제한을 시작했다. 더욱이 현재 동아시아에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통한 여론의 국제적 순환조건이 이미 성립되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만약 이 시스템이 서로의 반감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빠져든다면, 여론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분쟁처리도 구속하게 되어 국제적으로 위기적 국면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 경제 시스템 전체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없다.⁴⁶⁾

이러한 구조적 상황이 중국정부로 하여금 반일시위의 관리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히 반일시위의 증폭이 중국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그 단적인 예로서 2005년 5.4운동 기념일을 계기로 한 반일시위 발생이 예상되었지만 중국정부의 철저한 단속으로 불발에 그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중일 양국의 두 번에 걸친 외상회담 및 4월 말의 후진타오-고이즈미 정상회담의 실현이라는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⁴⁷⁾ 그 이후 2007년 난징대학살 70주년 행사는 중국정부가 반일감정의 자극을 우려하여 행사를 최소화하거나 행사 자체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물론 일본을

46) 현대일본학회 엮음(2007) 『21세기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전. 1』 한울, p.163.

47) 손기섭(2005) 「고이즈미 내각기의 중일 “72년 체제”의 갈등과 전환」 『국제정치논총』 제45권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p.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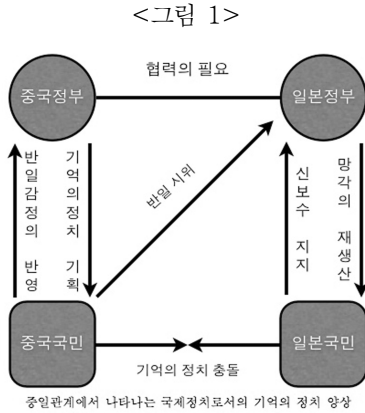
향한 반성이나 사과 요구가 없었던 점도 그와 같은 맥락이었다.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 '난징의 악몽'이 중국 내 상영이 중국공산당에 의해 전격적으로 금지되었다.

일본 역시 이러한 외교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물론 거기에는 일본 내부의 시민단체에 의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일본정부 자체의 관리 의사도 관철된 것이었다. 기억의 정치의 충돌이 가장 극심하게 진행되던 고이즈미(小泉) 수상 이후에도 이른바 강경파로 분류될 수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아소 다로(麻生太郎)가 집권하였지만, 그들 역시 근본적으로 중국과 대결하는 기억의 정치를 회피하려는 움직임 보였다. 점차 이른바 '망언'의 강도나 횡수도 줄어드는 등 중일관계를 자극하려는 행동을 점차 자제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결과가 2007년 4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일과 중일 간의 '전략적 호혜관계' 선언으로 표면화하였다. 양국 정부 모두 난징대학살 문제를 둘러싼 기억이 국내적 '공동 기억'의 형성에 중요한 소재로 삼았지만, 그것이 양국 관계를 위협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동감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인 문제가 중일관계 사이에 심각해지면서 일본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 공동연구를 제안하였으며, 그에 따라 양국 정부는 각각 전문가 10명을 역사공동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고대, 중·근세사, 근·현대사 분과를 설치했다. 양국은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일본)와 중국사회과학원근대사연구소(중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좌장으로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도쿄대학 법학부 교수), 부평(步平·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소장)을 선임했다. 공동연구에 있어 난징대학살은 공동연구의 최대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중일전쟁이 침략전쟁임을 인정하는 등의 합의를 도출한 반면에, 난징대학살은 각각의 의견을 공동 병기하는 차원에서 정리되었다.⁴⁸⁾ 이는 여전히 난징대학살이라는 쟁점이 일본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아직 그에 대한 시각차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각각의 주장을 병기하여 기억의 정치가 초래할 수도 있는 왜곡이나 은폐의 움직임을 약화시키고 상호 납

48) 한겨레, 중일전쟁 '일본 가해책임' 기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402247.html> (검색일자, 2011.2.10)

득가능 한 방법으로 역사문제를 점검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억의 정치를 둘러싼 문제에 중요한 시사를 던지는 것이다. 원래 기억의 정치의 기획과 생산의 제1주체는 국가이다. 국내정치 영역에서 기억의 정치는 추모, 내러티브, 재현 및 재생산의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이 경우 추모와 내러티브는 민간 영역에서 촉발된다. 추모를 통해 전쟁기억의 당사자의 사연이 친지나 친구의 기억으로 전이된다. 이렇게 기억은 형성된 기억은 내러티브를 통해 당사자와 당사자의 가까운 기억에서 사회의 기억으로 전이된다. ‘이야기’라는 내러티브는 당사자의 경험을 사회적 기억으로 구성하여 사회 전체의 기억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국가는 국가로서의 기억의 정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러티브를 재생산하며 기억의 정치를 기획해낸다. 이렇게 기획이 이뤄진 기억의 정치는 국내정치에서 작동하면서 국가의 기억으로 형성되며 지속성을 가지는데, 이렇게 형성된 기억의 정치는 국내정치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확장된다. 기억의 정치에서 국가는 추모와 내러티브 과정에도 관여하지만 궁극적으로 재생산의 과정에서 국가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재생산 되어 그것이 민간 영역에 투사된 이후에는 국가가 기획한 기억의 정치를 제어하고 되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미 민간영역 자체 내부에서 내러티브와 재생산은 지속적으로 작동하여 국가가 재

생산을 멈춘다고 하여도 이미 민간영역 자체에서 재생산은 지속된다. 민간영역 내부에서 여론의 교류가 활발할수록 이러한 재생산은 자체적으로 더 활성화 된다. 앞서 언급한 중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억의 정치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두 영역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며, 게다가 공식적 기억으로 자리 잡은 내러티브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내러티브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기억의 정치는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가는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여하지만, 민간영역에 내재화된 공동의 기억은 관성적으로 기억의 정치를 재생산하면서 국가와 충돌의 접점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경우는, ‘망각의 증폭’이라는 양상으로 시민사회영역에서 기억의 정치가 작동하게 되었다. ‘새역모’로 상징되는 역사교과서 개정운동이나 만화나 도서 등의 출판물을 통한 망각의 증폭 또한 눈에 두드러진다. 이른바 ‘자유주의사관 연구회’와 ‘새역모’는 기존의 역사관을 ‘도쿄재판사관’, ‘코민테른사관’, ‘자학사관’, ‘암흑사관’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과거사를 정당화하는 역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⁴⁹⁾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억 및 망각의 재생산의 내부화는 기억의 정치와 국제정치학적 딜레마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구조적 문제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억의 정치가 국내정치에서 국제정치로 확대됨에 따라 기억의 정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강제적인 통제는 완전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기억의 정치의 생산 및 재생산의 중심주체는 여전히 국가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 기억의 재생산의 주요 행위자로서 민간영역이 적극화한 이후에는 국가가 이를 돌리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국가는 국내정치 영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기억의 정치에 대한 재생산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 정치세력이 바뀌어도 기억의 정치는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강한 것은 그 때문인 것이다.

49) 김인화·김명섭(2007) 『논문 : 기억의 국제정치학 :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동북아시아, 『사회과학논집』 제38권 1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68.

VI. 맺으며

난징대학살 문제의 실체를 70여년이 지난 오늘날 정확하게 재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잔학성의 규모에 대해 조사한 아이리스 장(Iris Chang)에 따르면, 난징의 사망자들이 손을 이어 붙인다면 난징에서 항저우까지 약 322km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사망자들이 흘린 피의 양은 1,200톤에 이르고, 그 시체는 기차 2,500량을 가득 채울 것이며, 시체를 포개놓는다면 74층 높이의 빌딩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⁵⁰⁾ 물론 이러한 통계치 자체에 쟁점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잔학성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난징대학살’ 문제는 각각의 국가 내부에서 전쟁의 폭력성을 둘러싸고 어떻게 기억 혹은 망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게다가 그에 대한 기억의 정치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억의 정치에 동반하는 국내적 과정과 더불어 국제적 영향 등의 다이내믹즘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유력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2007년 난징대학살 70주년 기념행사가 자국 정부에 의해 취소 혹은 축소되거나 다큐멘터리 ‘난징의 악몽’이 중국 내 상영이 금지되는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에 대한 기억으로 국민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해온 국민에 의한 내셔널리즘적 분출을 오히려 자국 정부가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관리 혹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도 직면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의 정치와 국제정치학적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억의 정치가 단순히 국가에 의한 동원과 재생산이라는 일방적 방향에서만 조망되어서는 기억의 정치에 내포된 다양한 기억 간의 경합의 문제가 경시되기 쉽다. 뿐만 아니라, 공동의 기억으로 형성된 국민이 단순히 국민적 아이덴티티의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국제적 경쟁 및 협력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적극적 행위자(actor)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는다는 다이내믹한 상호관계는 기억의 정치와 국제정치학적 딜레마라는 측면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0) Iris Chang, 김은령 역(1999) 『난징 대학살』 끌리오, p.11.

그와 함께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촉발할 수 있는 역사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은 역사문제의 국제정치학적 딜레마를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를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일전쟁이 침략전쟁임을 인정하는 등의 합의가능한 부분에서의 합의 도출과 함께,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을 공동 병기하여 자국 정부의 주장을 자국민이 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물론 이러한 공동 병기가 여전히 난징대학살이라는 쟁점이 일본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아직 그에 대한 시각차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각각의 주장을 병기하여 기억의 정치가 초래할 수도 있는 왜곡이나 은폐의 움직임을 약화시키고 상호 납득가능한 방법으로 역사문제를 점검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상중, 임성모 역(2004) 『내셔널리즘』 이산.
- 최원식·백영서·신윤환·강태웅 엮음(2009)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논형.
- 김상준(2005) 「논문 : 기억의 정치학 : 야스쿠니 vs. 히로시마」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5호, 한국정치학회.
- _____ (2007)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서 중국과 일본」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7권 3호, 21세기정치학회.
- _____ (2009) 「일본 전쟁기억과 공동체의 상상 기억의 사회적 재생산을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30권, 현대일본학회.
- 김인(2005) 「초점 : 중국 초점 ; 중국의 반일시위와 중일관계」 『월간 아태지역동향』 제160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김인화·김명섭(2007) 「논문 : 기억의 국제정치학 :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동북아시아」 『사회과학논집』 제38권 1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현우(2004) 『일본 현대 정치사』 아카넷.
- 김호섭 외(2000) 『일본우익연구』 중심.
- 동북아역사재단 엮음(2009)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 1, 關東·東北 지역 편』 동북아역사재단.
- 박경석(2009) 「동아시아의 전쟁기념관과 역사 갈등 (‘中国人民抗日战争紀念館’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1권,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 변창구(2010)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서 중, 일 관계의 양면성」 『한국동북아논총』 제55권, 한국동북아학회.
-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엮음(2009) 『기억과 전쟁 :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휴머니스트.
- 손기섭(2003) 「논문 :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일중 국교정상화의 정치과정」 『일본연구논총』 제17권, 현대일본학회.
- _____ (2005) 「고이즈미 내각기의 중일 “72년 체제”의 갈등과 전환」 『국제정치논총』 제45권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 _____ (2006) 「고이즈미정권의 동아시아 외교와 중일관계」. 『한일군사문화연구』 제4권, 한일군사문화학회.
- _____ (2007) 「일본의 동아시아외교 : 미일동맹과 중일관계의 상관성」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권 3호, 한국세계지역학회.
- 여문환(2009)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국제정치 : 한·중·일 전쟁기념관을 가다!』 한국학술정보.
- 연현식(2008) 「후쿠다 야스오의 공명(共鳴)외교와 동북아」 『일본학보』 제76권, 한국일본학회.
- 이계황(2003) 『기억의 전쟁 :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규수(2005) 「일본 사회의 “과거사” 기억과 우경화」 『일본학』 제24권,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이기완(2009). 「중일관계 갈등의 이슈와 원인 : 일본 측 정치동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3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_____ (2009) 「중·일관계, 갈등 최소화 지역협력 강화」 『통일한국』.
- 이황직(2006) 「일반 논문 : 역사의 정치화와 정치의 탈역사화 : 역사를 둘러싼 극단 대립에 대한 성찰」 『사회 이론』 제30권, 한국사회이론학회.
- 장세룡(2010) 「논문(論文) : 로컬 기억과 기억의 정치 폴란드 에드바르네 유대인 학살 기억의 사례」 『대구사학』 제98권, 대구사학회.
- 한건수(2002) 「특집 : 구술사와 기억 경합하는 역사 : 사회적 기억과 차이의 정치학」, 『한국문화인류학』 제35권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 허동현(2001) 「특집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학술대회 ;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한 일관된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경기사학』 제5권, 경기사학회.
- _____ (2005) 「특집 2 :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후소사 판) 문제의 배경과 특징 역사기억의 왜곡과 성찰」 『한국사연구』 제129권, 한국사연구회.
- 현대일본학회 엮음(2007) 『21세기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전. 1』 한울.
- 家永三郎, 현명철 역(2005) 『전쟁책임』 논형.

- 加藤陽子, 박영준 역(2003)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 정한론에서 태평양전쟁까지』 태학사.
- 野田正彰, 서혜영 역(2000) 『전쟁과 인간 : 군국주의 일본의 정신분석』 길.
- 丸山真男, 김석근 역(2007)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 문학동네.
- Alexander Wendt(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b Tadashi Wakabayashi edit(2007) *The Nanking Atrocity 1937-38*, New York: Berghahn Books
- Benedict Anderson, 윤희숙 역(2002)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 David I. Kertzer(1988) *Ritual, politics, and pow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Ernest Gellner(1983)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Nationalism*,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Ernest Renan, 신행선 역(2002)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 Gilbert Rozman, 이신화 · 김동중 · 이성용 역(2007) 『동북아시아 지역주의 : 국가 간 불신, 세계화, 그리고 정제된 협력』 博英社.
- Hasegawa Tsuyoshi · Togo Kazuhiko(2008) *East Asia's Haunted Present, Connecticut: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 Ian Buruma, 정용환 역(2002)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한겨레신문사.
- Iris Chang, 김은령 역(1999) 『난징 대학살』 끌리오.
- Jeffrey Olick, 최호근 · 민유기 · 윤영휘 역(2006) 『국가와 기억 :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본 집단기억의 연속 · 갈등 · 변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Manuel Castells, 정병순 역(2008), 『정체성 권력』 한울아카데미.
- Sheila Miyoshi Jager · Rana Mitter(2007) *Ruptured histories : war, memory, and the post Cold War in Asia. War, memory, and the post Cold War in Asi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David Askew, *New Research on the Nanjing Incident*.
<http://www.japanfocus.org/-David-Askew/1729> (검색일 : 2011.2.9).
- 난징대학살기념관 웹사이트. <http://www.nj1937.org> (검색일: 2010.12.11).
- 난징대학살 웹사이트. <http://www.nankingmassacre.com> (검색일: 2010.12.11).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검색일: 2011.2.10).

❖ 투고일 : 2010. 12. 31.

❖ 심사일 : 2011. 01. 31.

❖ 심사완료일 : 2011. 02. 10.